

봉사할 기회를 주어 고맙습니다



박정순 씨는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부산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급식 봉사를 20년 넘게 계속해오고 있다.

박정순 씨는 매일 아침 7시 반 부산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출근한다. 인근 독거노인과 사회취약계층에게 배달될 밑반찬과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서다. 서른 개의 도시락을 부지런히 만들고 나면 오전 9시. 그때부터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급식 준비를 돕는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경로식당이 다시 문을 열면서 조리 사들도, 돕는 사람들도 신바람이 난다.

깔끔하게 새단장한 경로식당에 구수한 음식 냄새가 가득 퍼질 무렵, 어르신들이 하나 둘 찾아와 인사를 나눈다. 박정순 씨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주고 빈자리를 치우며 거든다. 2001년부터 계속해 온 박정순 씨의 하루 봉사 일과다.

“이 나이에 나를 필요로 하고 오라 하는 데가 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친구들이 ‘나는 갈 데가 없는데 너는 맨날 일하러가니’ 하데

요. 젊을 때부터 쭉 했으니 팔순 나이가 돼도 이렇게 불러주는 데가 있구나 싶어 매일 감사히 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기꺼이 찾아간 박정순 씨는 지난해 40년 넘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34회 아산상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아들을 위한 시작이 이웃을 섬기는 봉사로

박정순 씨가 처음 봉사를 시작한 것은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다. 등하굣길에 아이들끼리 건너기 위험한 4차선 도로가 있었고, 혹시 사고가 날까 걱정된 박정순 씨는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에 참여해 아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시작했다. 그렇게 연년생 세 아이가 초등학교를 모두 졸업할 때까지 무려 10여 년간 교통지도를 담당하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했다. 그

의 성실함은 금세 소문이 났고,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을 돕고 간식과 끼니를 챙겨주기도 했다.

그렇게 꾸준히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던 박정순 씨에게 보다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1992년 그가 살고 있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새롭게 발족한 것이다.

“그때는 적십자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도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깐 그러마 했지요.” 10년 넘게 성실히 봉사해 온 박정순 씨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를 회장 후보로 추천했고, 박정순 씨는 사양할 틈도 없이 강동동 적십자 봉사회장으로 임명됐다. 아들이 걱정되어 시작한 일이 어느새 우리 이웃을 위한 봉사로 크게 이어지고 있었다.

봉사에 참여하는 것에 감사할 뿐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그는 봉사가 필요한 현장 어디나 달려갔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봉사를 시작한 일이다. 재료준비부터 김장까지 봉사회 회원들이 담당해 직접 배달까지 하는, 무려 4일이 꼬박 걸리는 만만찮은 일이다. 하지만 1993년 첫 김장봉사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이후 강동동 적십자 봉사의 중요한 연례행사로 자리 잡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2000년 태풍 사오마이와 2003년 태풍 매미가 부산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박정순 씨와 적십자 봉사회도 구호현장에 힘을 보탰다. “우리 집도 전기가 끊기고 유리가 다 깨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로등과 나무도 다 옆으로 쓰러져 있고 난리였죠. 그래도 우리 가족은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해먹을 수 있었으니 괜찮았습니다. 한 사흘을 꼬박 자원봉사자, 구급대원, 이재민들의 식사를 만들고 집에 돌아왔더니 전기 복구가 안돼서 냉장고가 온통 난리가 났더라고요.”

2002년 김해 민항기 추락 사고에도 구조요원들의 식사를 지원하며 힘을 보탰고, 지역의 주요 행사인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 체육대회에도 조리봉사로 참여했다. 회장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적십자 봉사회 임원과 명예회원으로 활동하며 30년간 부산 적십자 봉사의 핵심 일꾼으로 봉사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적십자 봉사의 정년 규정에 따라 명예롭게 은퇴했다. 박정순 씨는 ‘지금까지 봉사할 기회를 준 것이 감사할 뿐’이라며 아쉬움보다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남을 돕는 순수한 기쁨과 행복



경로식당에서 배식을 돕고 있는 박정순 씨.

박정순 씨가 평생 꾸준히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형편이 넉넉해서도, 시간이 많아서도 아니다. 그저 남을 돕는데서 오는 순수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뿐이다. “오래 전에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등록금을 보태준 적이 있었는데, 그중 한 학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 집을 보더니 우리가 부자라서 도와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놀라고 감명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평생 잊지 않고 자기도 꼭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 학생의 말이 참 고마웠고, 아직도 종종 생각이 납니다.”

박정순 씨는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봉사활동을 응원해준 남편의 덕분이라고 공을 돌린다. 1997년 사고를 당한 남편은 18년간 휠체어 생활을 했고 세상을 떠나기 전 8년간 신장투석을 했다.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주저하는 박정순 씨를 오히려 응원하며 봉사활동을 나가게 등을 떠밀었다. “나도 당신 손이 필요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픈 나만 보고 있으면 당신이 병나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항상 그에게 힘을 주는 남편의 응원을 기억하며, 박정순 씨는 다시 봉사의 현장에서 기쁘게 섬기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몸에 익은 봉사활동이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된 박정순 씨는 기분 좋은 혼잣말로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한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구나.” 글 편집부